

“광주에 실내악 매력 오래도록...”

창단 10년 맞은 '랑 현악4중주단'
이수연·김재은·신정문·윤소희 씨
16일, 금호아트홀서 기념음악회



창단 10년을 맞은 '랑 현악4중주단' 멤버 이수연(왼쪽부터)·김재은·신정문·윤소희 씨.

바이올린 두대와 비올라, 첼로로 이뤄진 현악4중주(String Quartet)곡은 실내악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장르다. 최근 국내외에서 현악4중주단이 인기를 끌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머슨, 보르디 콰르텟 등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노부스 콰르텟 등이 청중과 교감하고 있다.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은 '랑 현악4중주단'은 실내악 불모지인 광주에서 꾸준히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돋보이는 실내악 그룹이다.

'랑 현악4중주단'은 이수연(바이올린·광주시향 상임수석), 김재은(바이올린·전남대 등 출강), 신정문(비올라·광주시향 상임수석), 윤소희(첼로·전남대 등 출강)씨가 지난 2009년 창단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10주년 기념음악회'를 열고 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타이틀로 모차르트, 쇼스타코비치, 그리그의 현악 4중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4일 광주시 북구 풍향동 연습실에서 멤버들을 만났다. '랑'은 독일어로 '길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나랑너랑', '함께'라는 뜻도 담아 단체 이름으로 정했다.

"4명이 함께 연주활동을 오랫동안 하자는 취지에서 '랑'으로 지었습니다. 4명 모두 독일에서 공부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름이 됐죠. 광주에도 실내악을 꾸준히 선보일 단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함께하게 됐어요."(신정문)

일주일에 2~3번 이곳에서 모여 연주회를 준비한다는 이들은 결성 10주년에 대한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10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씨는 "랑" 창단 때는 미혼이었는데 "랑"으로 활동하면서 결혼, 출산, 육아 등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모두 겪었다"며 "특히 대학 때 선생님이셨던 신정문 선생님과 함께 연주를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이수연, 윤소희 씨와도 멤버로 함께 활동을 한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10주년을 맞아 나에게 있어서 '랑'은 뭔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래 지켜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현악4중주단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멤버들간의 의견대립이예요. 음악적인 부분에서 부딪히고, 자기것만 요구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저도 초기에는 '그만뒀어되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멤버들과 그냥 함께하는게 좋아서 싸우면서도 계속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대립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싶어요."(이수연)

이들은 열정을 넘쳤던 창단 연주회, 나주의 한 시골마을에서 열었던 '봄 연주회', 정기적으로 보육원을 찾아 진행한 '신나는 예술무대', 가족사랑 태교콘서트, 나주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음악

회, 바하 '푸가의 기법' 전국 연주회 등을 회상하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봤다.

이번 10주년 기념 음악회는 지난 10년의 시간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길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시간이다. 윤 씨는 이번 공연을 '앞으로의 10년을 약속하는 연주회'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번 공연을 앞으로 나이가 들어도 함께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 기획했다"며 "4명 모두 흰머리로 분장을 한 미래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한 계획은 없지만 연주회마다 충실히 준비해 관객들에게 좋은 무대를 보여주자는게 이들의 생각이다. 또, 새로운 레퍼토리를 발굴해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등 지금같은 모습으로 꾸준히 연주하는게 중요하다는 것.

"광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현악 4중주단이 거의 없는 터라 무거운 책임감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창단연주회 때와 같은 열정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10주년을 발판삼아 앞으로 20년, 30년 연주를 계속할 생각입니다."(신정문) /전은재 기자 ej6621@

'무등미술대전' 대상, 한국화 정명기·서양화 윤석순

대상 등 875점 입상작 발표
18일 비엔날레전시관서 시상식
18~23일 수상작 전시회



서양화 부문 윤석순 작 '외출'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박재순)가 주최한 제36회 무등미술대전에서 한국화가 정명기(경기도 고양시) 작가의 '우일'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 서양화 부문에서는 윤석순(서울시 중랑구) 작가의 '외출'이 대상을 받았다.

주최측은 지난 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심사를 열고 대상 8점, 우수상 23점, 특선 314점, 입선 530점 등 총 875점의 입상작을 발표했다. 조각 부문은 대상 작품을 내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지난해 보다 10점 감소한 총 1449점이 출품됐으며 외부 지역 작품수가 50%를 넘었다. 한국화·서양화 등 대부분 분야에서 출품작 수가 소폭 감소했으며 공예와 사진 분야는 참가작이 늘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문인화가 조영실 작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작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국 각 지역에서 지난해 출품작 수에 육박하는 작품이 접수돼 의미가 있었다"며 "수준 높은 작품들이 출품돼 무등미술대전의 권위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985년 지방미술문화 향상 발전과 전국 미술인의 등용문을 내걸고 시작된 무등미술대전은 지금까지 총 4만 416점이 출품돼 2만 454점이 입상했으며 특히 대상 수상작품 243점은 시상금으로 매일,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며 수상작 전시회는 18일부터 23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분야별 대상, 우수상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문인화=최금자(경남 사천시) '묵죽' ▲수채화=김수미(전남 여수) 'blue city' ▲판화=육사사(광주시 동구) '타산지식' ▲공예=최현석(전북 익산) '황실천하' ▲서예=주금성(광주시 광산구) '백강선생시' ▲사진=손수연(전남 나주시) '불자의 정성' ◇우수상 ▲한국화=홍지희·고예림 ▲문인화=이해정·임상철 ▲서양화=송유미·구나리 ▲수채화=오현순·정은주 ▲판화=김미연 ▲조각=전현준·김용 ▲공예=조정숙·배상숙·박상현·김소운·소진영·김주희 ▲서예=신경식·강상근·문원일·최기영 ▲사진=김상필·주우신
특선, 입선작은 광주·전남발전협의회 다음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gjpow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공예부문 최현석 작 '황실천하'

'영혼의 순례자'

한희원 초대전 전남대치과병원



'코카서스의 겨울'

한희원 작가 초대전이 오는 30일까지 전남대치과병원(원장 박홍주)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열린다. 전남대치과병원 개원 12주년 기념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 한 작가는 '영혼의 순례자'를 주제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작들은 한 작가가 지난해 1년간 조지아공화국 트빌리시에 머물며 작업했던 것들이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별빛을 담은 풍경이나 악기 연주에 열중한 늙은 거리의 악사, 술잔이 오가는 선술집과 팔러이는 빨래 등 사립 사는 내용이 물씬 나는 동네 풍경 등 그의 화폭 속에 담긴 모습은 위로와 힐링을 전한다. 올해 시화집 '이방인의 소묘'를 펴내기도 했던 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도 '그림으로 쓴 시'같은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전남대치과병원은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들을 위로하고 예술적 향기를 전하기

위해 개원 당시부터 1층 로비에 예술공간 아트스페이스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정문열 서강대 교수 초청 강연

10일, '기계와 인간의 소통, 새로운 예술의 시작' 주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송보)은 제4기 미술관 아카데미를 강사로 정문열 서강대 교수를 초청, 인간과 미디어가 소통하는 새로운 미술에 대한 강연을 개최한다. 10일 오후 3시~5시 시립미술관 대강당.

예술과 과학기술을 접목한 AI, 인간과 매체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는 컴퓨터공학자이자 예술가인 정 교수는 '기계와 인간의 소통, 새로운 예술의 시작'을 주제로 강연한다.

미세한 물방울을 이용해 무지개, 안개 등을 연

상시키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미디어 아티스트인 정 교수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컴퓨터 과학으로 각각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서강대 영상대학원에서 예술과 과학 기술을 융합하는 실험을 통해 '포그 스크린', '영원회귀', '인공 무지개'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형태의 작품을 제작 및 연구하고 있다. 미술관 홈페이지(누리집)에서 80명 선착순 접수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엑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LOTTE CINEMA | 중앙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도굴 |
| 2관 | 도굴 |
| 3관 | 도굴, 소리도 없이 |
| 4관 |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
| 5관 |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
| 6관 | 도굴 |
| 9관 |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
| 7관 | 씨네카를 담보 |
| 8관 | 씨네카를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소리도 없이 미스터트롯: 더 무비, 아이 빌리브 나인스 게이트: 아홉 번째 살인 |

문화산책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2020. 11.5(목) ~ 11.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상자투의길 2020. 11. 10(화)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연극 정문열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